

교회소식

1. 각 가정에 머무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육으로 강건함이 있는 생활을 계속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2. 하반기 공동 성경 읽기 2주 차입니다. 잠잠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위: 여호수아 22장 - 사사기 18장 (매일 3장)
3. 각 공동체별 화상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매주 화, 목 오후 8시).
화 - 통가 공동체 (인물연구: 요셉)
목 - 일본 공동체 (인물연구: 갈렙)
4. 성전 이전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매일 저녁 9시).
기도 제목:
 - 성전 이전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더 잘 실천하도록.
 - 성전 이전이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되도록.
5.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 방을 통해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예배 순서 주보 참조).
6. 온라인 헌금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환 치료 금지 법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결을 위한 촉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https://www.onechurch.nz/news_nz/79250

September

교회사역일지

9월 5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9월 26일(주일)
성찬 주일
권사 기도회
9월 30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기도순서

9월 12일 (주일)
김병진 목사
9월 15일 (수)
김영아 집사
9월 19일 (주일)
박병민 장로
9월 22일 (수)
김은희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박제용, 김영옥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36호 2021.09.05

주	일	예	배	인도:
찬	양			주일 찬양단
Praise				
예	배	로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	찬	송	28장	다함께
Hymn				
✧	참	회의	기도	다함께
Prayer of Repentance				
✧	신	앙	고백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	송		285장	다함께
Hymn				
대	표	기	도	현석호 장로
Prayer				
성	경	봉	독	인도자
Scripture			여호수아 10:6-14	
찬	양	대	찬	나무십자가 찬양대
Choir				
설	교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태한 목사
Sermon				
찬	송		411장	다함께
Hymn				
헌	금	기	도	인도자
Offering				
교	회	소	식	인도자
Announcements				
✧	공	동	성경읽기	다함께
Closing Scripture				
✧	응	답	송	다함께
Closing Hymn			171장 (1절)	
✧	축	도		이태한 목사
Benediction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동역자님께

8월에 눈이 오는 것도 희귀하지만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밤에 우박이 내려 지붕에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기도와 후원으로 우한 Covid19의 위험과 계속되었던 비바람과 추위 속에서 사역지를 지키며 말긴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예배시간마다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도 울고, 눈물의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선교사의 눈에 눈물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새 일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서 힘을 얻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더 큰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교회와 후원자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반복되는지, 생각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감사하고, “선교사님! 새벽마다 선교사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더 충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바울 사도처럼 사명 붙잡고 달려갈 길 달려가게 됩니다.

사역소식

아동부 및 장년 예배

아침 9시에 드리는 예배가 이제 익숙해 질만 한데, 이들에게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겨울철에는 어른들도 11시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못 일어나서 예배에 빠지기도 하는데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마마 아멜라, 부장 리바디,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부세(25)와 친구가 오랜만에 술을 먹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고철 총정리

그동안 모아 놓은 구리, 알루미늄, 캔, 고철 등을 한 차 가득 싣고 가서 팔았습니다. 여러 번 왔지만 비가 많이 와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고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2,904란드 우리 돈 25만 원쯤 되는데 올 때마다 매년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2021년 08월 31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김선화 권사
성	경	Scripture	여호수아 2:15-24
설	봉	Sermon	광야는 믿음이다! 이성훈 목사
찬	송	Hymn	-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8월 29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다> 창세기 24:58-67

리브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결정해야 할 순간에 단호하게 종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58). 가족들에게는 놀랍고 섭섭한 대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한 리브가의 삶을 완벽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1) 리브가의 삶을 풍성함과 승리로 채워주심: 지체 없이 바로 떠나겠다는 리브가에게 섭섭했을 가족들이 갑자기 리브가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6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족들의 축복의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창 17:16, 22:17)과 똑같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삶은 이 축복대로 되어 삶 자체가 승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속해 주신(막 10:45)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기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승리로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이 실현될 때까지 20년이나 걸렸으며(창 42:9)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로 처절한 실패인 것만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행통한 자가 되었습니다(창 39:2). 요셉이 총리가 된 점이 아니라 실패 같은 인생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신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고 낙망하는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인도하심: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간 것은(61)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바울의 열심을(고후 11:2) 연상케 합니다. 가는 길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윗만이 아닌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시 23:2-3).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리브가처럼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익숙해져 버린 죄악된 삶을 떠나지 못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며 오직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 갈 때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 37:5).

3) 리브가를 이삭이 맞이함: 이삭은 기다리면서도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들에 나가 묵상했습니다(63). 즉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67). 이삭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했을 때 어머니의 죽음으로 덮인 슬픔에서 벗어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67). 살아오며 얻은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수백 킬로를 믿고 따라온 리브가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이삭을 통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믿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어려울 때라도 스데반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행 7:56).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맞이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리브가를 풍성한 승리의 인생으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으로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도들이 영육으로 건강하고 경건하게 락다운을 지혜롭게 보내도록.
2.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양육에 능력이 풍성하도록.
3. 열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비를 구하도록.